

교과서 완전 학습,  
학교 시험 완벽 대비

# 자습서

## 고등학교 독서와 작문



### 서혁 교과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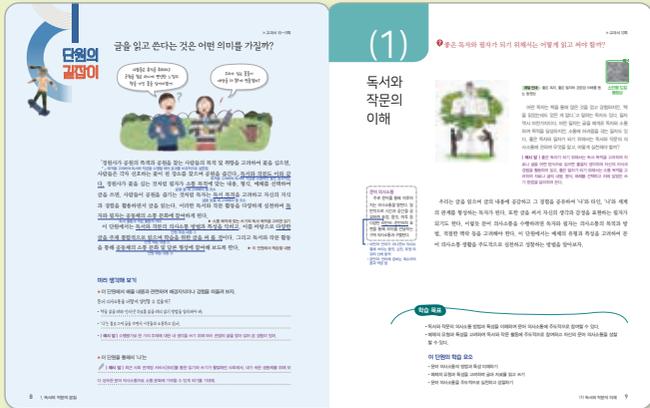
교과서 전 지문의 꼼꼼한  
분석 및 자세한 활동 풀이

개념을 다지는 핵심 정리  
실력을 키우는 확인 문제

내신을 완벽하게 대비하는  
소단원, 대단원 시험 예상 문제

# 이 책의 구성과 특징

## 교과서 완벽 분석 & 핵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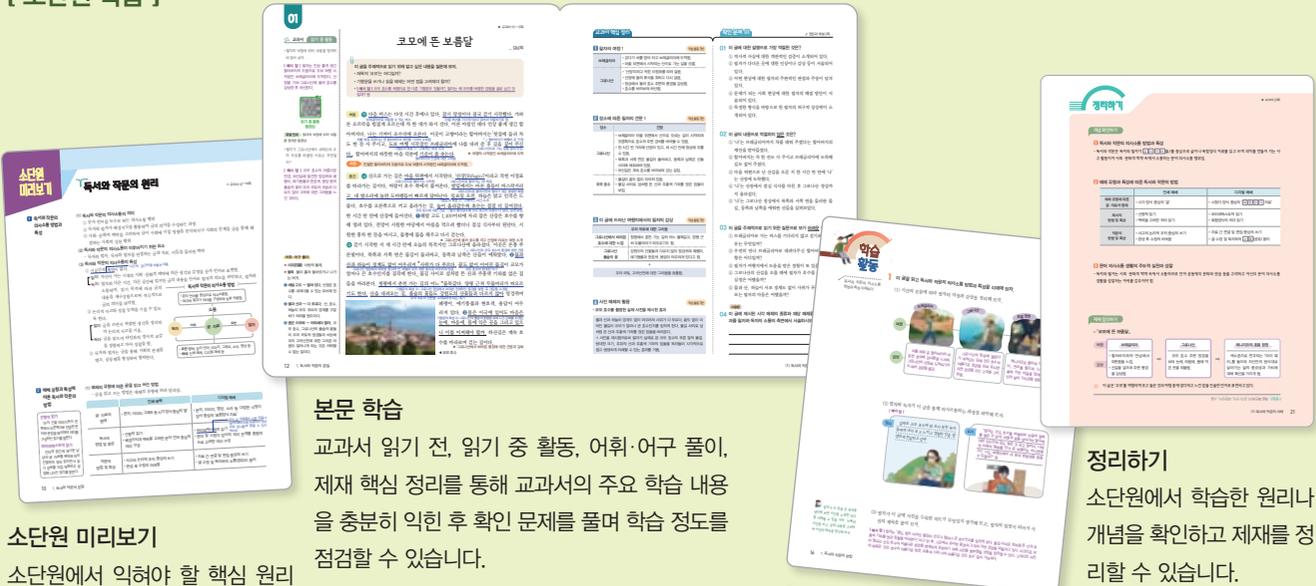
### [ 단원의 길잡이 ]

길잡이 글을 통해 대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확인하고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며 대단원 학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 소단원 도입 ]

생각 열기 활동과 학습 목표를 통해 소단원에서 학습할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 소단원 학습 ]



소단원 미리보기  
소단원에서 익혀야 할 핵심 원리와 제재 학습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학습**  
교과서 읽기 전, 읽기 중 활동, 어휘·어구 풀이, 제재 핵심 정리를 통해 교과서의 주요 학습 내용을 충분히 익힌 후 확인 문제를 풀며 학습 정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학습 활동**  
예시 답을 참고하여 학습 활동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 보며 본문 학습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기**  
소단원에서 학습한 원리나 개념을 확인하고 제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이 책의 차례

## 1

### 독서와 작문의 본질

- (1) 독서와 작문의 이해 ..... 9  
· 코모에 뜬 보름달 \_김남희
- (2) 주제 통합적 읽기와 학습을 위한 글 쓰기 ..... 25  
· 호모 사피엔스, 이주를 시작하다 \_조일준  
· 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 무엇이 문제인가 \_이선영
- (3) 독서와 작문에의 참여 ..... 47  
·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 \_박지원
- 대단원 시험 예상 문제 ..... 65

## 2

### 독서와 작문의 방법

- (1) 읽기 전략 활용하여 읽기 ..... 75  
· 역설적인 '시간 빈곤'의 시대 \_구본권
- (2) 작문의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 97  
· 동물권을 인정하여 동물들의 미소를 찾아 주세요 \_학생 글
- 대단원 시험 예상 문제 ..... 116

# 3

## 다양한 분야의 글 읽고 쓰기



<b>(1) 인문 · 예술 분야의 글 읽기와 쓰기</b>	125
• ‘즐거운 삶’은 ‘좋은 삶’일까 _정은주	
• 공간을 창조하는 예술, 조각 _이주현	
<b>(2) 사회 · 문화 분야의 글 읽기와 쓰기</b>	153
•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_김경곤	
• 바스티유 감옥과 프랑스 혁명 _김성환	
<b>(3) 과학 · 기술 분야의 글 읽기와 쓰기</b>	183
• 부드럽고 고소한 지방의 두 얼굴 _성종환	
• 자기 치유 소재, 어디까지 가능할까 _전승민	
<b>대단원 시험 예상 문제</b>	216

# 4

## 글 읽고 목적에 맞게 쓰기

<b>(1) 정보 전달을 위한 글 쓰기</b>	225
• 지구를 살리는 집 _학생 글	
<b>(2) 논증을 위한 글 쓰기</b>	243
• 청소년과 사회적 관계망 _학생 글	
<b>(3) 정서 표현과 자기 성찰을 위한 글 쓰기</b>	261
• 우리에게겐 꿈을 쉽게 포기하는 버릇이 있다 _정여울	
<b>대단원 시험 예상 문제</b>	281



정답과 해설



# 독서와 작문의 본질

- 
- (1) 독서와 작문의 이해
  - (2) 주제 통합적 읽기와 학습을 위한 글 쓰기
  - (3) 독서와 작문에의 참여





## 대단원 학습 목표

- ◆ 독서와 작문의 의사소통 방법과 특성을 이해하고 문어 의사소통 생활을 주도적으로 실천하고 성찰할 수 있다.
- ◆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며 글이나 자료를 읽고 쓸 수 있다.
- ◆ 독서의 목적과 작문의 맥락을 고려하여 글이나 자료를 탐색하고 선별할 수 있다.
- ◆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고 학습의 목적과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을 위한 글을 쓸 수 있다.
- ◆ 독서와 작문의 관습과 소통 문화를 이해하고 공동체의 소통 문화 및 담론 형성에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다.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디지털·미디어 역량

의사소통 역량

# 단원의 길잡이



## 글을 읽고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정원사가 공원의 특색과 공원을 찾는 사람들의 목적 및 취향을 고려하여 꽃을 심으면,」  
『』 목적을 고려하여 독서와 작문을 수행할 때의 효과를 비유적으로 설명함.  
 사람들은 각자 선호하는 꽃이 핀 장소를 찾으며 공원을 즐긴다. 독서와 작문도 이와 같다. 정원사가 꽃을 심는 것처럼 필자가 목적을 고려하여 독서와 작문을 수행하면 훨씬 효과적임. 소통 목적에 맞는 내용, 형식, 매체를 선택하여 글을 쓰면, 사람들이 공원을 즐기는 것처럼 독자는 독서 목적을 고려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면서 글을 읽는다. 이러한 독서와 작문 활동을 다양하게 실천하며 독자와 필자는 공동체의 소통 문화에 참여하게 된다. ▶ 글을 쓸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소통 목적에 맞는 쓰기와 독서 목적을 고려한 읽기  
독서 활동과 작문 활동의 의미  
 이 단원에서는 독서와 작문의 의사소통 방법과 특성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으며 단원 학습 내용 ① 학습을 위한 글을 써 볼 것이다. 그리고 독서와 작문 활동을 통해 단원 학습 내용 ② 공동체의 소통 문화 및 담론 형성에 참여해 보도록 한다. ▶ 이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  
단원 학습 내용 ③

### 미리 생각해 보기

-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과 관련하여 배경지식이나 경험을 떠올려 보자.

문어 의사소통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 책을 읽을 때와 인터넷 자료를 읽을 때의 읽기 방법을 달리해야 해.
- ‘나’는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이웃들과 소통하고 있어.

• | 예시 답 | 수행평가로 한 가지 주제에 대한 내 생각을 쓰기 위해 여러 관점의 글을 찾아 읽어 본 경험이 있어.

- 이 단원을 통해서 ‘나’는

| 예시 답 | 최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읽기와 쓰기가 활발해진 사회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보다 성숙한 문어 의사소통으로 소통 문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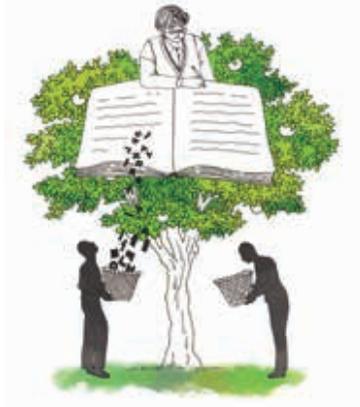
## ? 좋은 독자와 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읽고 써야 할까?



소단원 도입 동영상

**큐알 안내** ▶ 좋은 독자, 좋은 필자와 관련된 이해를 돕는 동영상

# 독서와 작문의 이해



어떤 독자는 책을 통해 많은 것을 얻고 경험하지만, '책을 읽었는데도 얻은 게 없다.'고 말하는 독자도 있다. 필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어떤 필자는 글을 매개로 독자와 소통하여 목적을 달성하지만,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필자도 있다. 좋은 독자와 필자가 되기 위해서는 독서와 작문의 의사소통에 관하여 무엇을 알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 예시 답 |** 좋은 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자료나 글을 어떤 방식으로 읽으면 좋을지 생각하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읽고, 좋은 필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통 목적을 고려하여 자료나 글의 내용, 형식, 매체를 선택하고 이에 알맞은 쓰기 방법을 달리하여 쓴다.

### 문어 의사소통

주로 문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며 표정, 몸짓, 어투 등 다양한 비언어·준언어적 표현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구어 의사소통과 구별된다.

- 비언어: 언어가 아니면서 의사소통에 쓰이는 몸짓, 손짓, 표정 따위의 신체 동작
- 준언어: 언어에 준하는 목소리의 톤과 억양 등

우리는 글을 읽으며 글의 내용에 공감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여 '나'와 타인, '나'와 세계의 관계를 형성하는 독자가 된다. 또한 글을 써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필자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문어 의사소통을 수행하려면 독자와 필자는 의사소통의 목적과 방법, 적절한 맥락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단원에서는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문어 의사소통 생활을 주도적으로 실천하고 성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 학습 목표

- 독서와 작문의 의사소통 방법과 특성을 이해하여 문어 의사소통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독서와 작문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문어 의사소통을 성찰할 수 있다.

### 이 단원의 학습 요소

- 문어 의사소통의 방법과 특성 이해하기
-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며 글과 자료를 읽고 쓰기
- 문어 의사소통을 주도적으로 실천하고 성찰하기

### 1 독서와 작문의 의사소통 방법과 특성

#### (1) 독서와 작문의 의사소통의 의미

- ① 문자 언어를 도구로 하는 의사소통 행위
- ② 독자와 필자가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
- ③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글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거나 사회의 문제를 글을 통해 해결하는 사회적 실천 행위

#### (2) 독서와 작문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소

- 독자와 필자, 독자와 필자를 연결하는 글과 자료, 이들을 둘러싼 맥락

#### (3) 독서와 작문의 의사소통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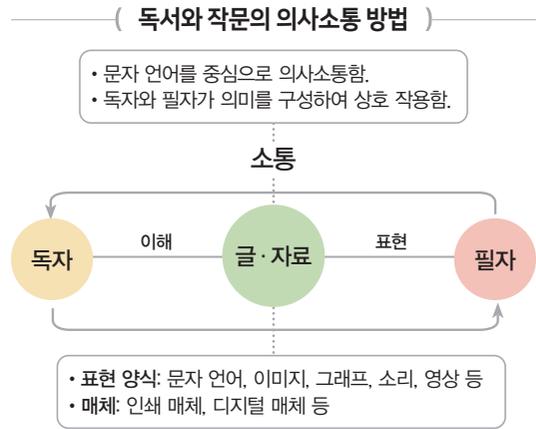
- ① 시공간적 제약이 없다. '시간적', '공간적'을 아울러 이룸.

필자: 자신이 사는 시대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생각과 감정을 문자 언어로 표현함.  
독자: 필자와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 있지만 글의 내용을 단서로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필자와 소통하며, 읽기 목적에 따라 글의 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글의 의미를 파악함.

- ② 논리적 사고와 성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필자: 글을 쓰면서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며 논리적 사고를 키움.  
독자: 글을 읽으며 타인과의 정서적 교감을 경험하고 자아 성찰을 함.

- ③ 독자와 필자는 글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형성하여 협력한다.



### 2 매체 유형과 특성에 따른 독서와 작문의 방법

#### (1) 매체의 유형에 따른 글을 읽고 쓰는 방법

- 글을 읽고 쓰는 방법은 매체의 유형에 따라 달라짐.

	인쇄 매체	디지털 매체
글·자료의 형태	• 문자, 이미지, 그래프 등 시각 양식 중심의 '글'	• 문자, 이미지, 영상, 소리 등 다양한 시청각 양식 중심의 '복합양식 자료'
독서의 방법 및 특성	• 선형적 읽기 • 배경지식과 맥락을 고려한 문자 언어 중심의 의미 구성	• 하이퍼텍스트적 읽기 • 문자 및 시청각 양식의 의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미 구성
작문의 방법 및 특성	• 사고의 논리적 조직 중심의 쓰기 • 완성 후 수정의 어려움	• 자료 간 연결 및 편집 중심의 쓰기 • 글 수정 및 독자와의 소통(공유)이 용이

#### 선형적 읽기

마치 선을 따라가듯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결된 문자와 문장을 해석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읽기를 말한다.

#### 하이퍼텍스트적 읽기

인터넷 공간에 제시된 낱말의 글·자료를 목적에 따라 선별하여 엮어 읽으면서 읽기 경로를 직접 계획하고 설정해 나가는 읽기를 말한다.

문서 속 자료들이 다른 자료나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 있어 서로 넘나들며 읽을 수 있는 텍스트

**3 문어 의사소통**  
**생활의 주도적**  
**실천과 성찰**

**작문 윤리**

필자가 글을 쓸 때에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이다. 거짓된 내용이나 차별적 표현을 다루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 이용 시 정확한 출처를 밝히는 것 등이 포함된다.

(2) 매체 유형에 따라 글을 읽고 쓸 때의 유의점

- ① 매체 유형과 특성을 이해하기
- ② 자신의 소통 목적에 맞는 매체를 적절히 선택하기

(1) 문어 의사소통의 주도적 실천

- ①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문어 의사소통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② 학습을 목적으로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정리함.
- ③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글을 통해 소통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함.

(2) 문어 의사소통 생활에 대한 성찰

- ① 다양한 글과 자료를 전략적으로 읽고 쓰며, 문어 의사소통 생활을 주도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함.
- ② 독서와 작문의 맥락, 언어 공동체의 문화와 관습 등을 고려하고 자신의 문어 의사소통 생활을 성찰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함.

**제재 학습**

**코모에 뜬 보름달**

- 해제

이 글은 코모 호수 일대를 여행하며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기록하고 있다. 필자는 코모 호수를 여행했던 추억을 정리하고 글로 기록하여 개인적으로 간직할 뿐 아니라, 여행지의 경관과 그곳에서의 감상과 사색을 여러 독자와 소통 및 공유하고자 하고 있다.

- 필자 소개

김남희(1971 ~ ), 여행가이자 작가. 세계 곳곳을 도보로 여행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글로 쓰거나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유럽의 걷고 싶은 길』, 『여행할 땐, 책』 등이 있다.

- 핵심 정리

갈래	기행문
성격	정서적, 감상적, 주관적
제재	코모 호수를 여행한 경험
주제	코모 호수에서의 여정과 감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지에 대한 정보 제공보다는 필자의 견문과 감상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li> <li>• 여정에 따른 견문과 감상을 구체적이고 개성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필자의 사색과 감정을 진솔하게 제시하고 있음.</li> <li>• 문자 언어와 사진(이미지)을 활용하여 의미를 표현하고 있음.</li> <li>• 여행지에서 들은 노래의 노랫말을 기록하여 제시하고 있음.</li> </ul>
구성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width: 30%;"> <p>친절한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도보 여행의 시작점인 브레글리아에 도착함.</p> </div> <div style="font-size: 2em; color: #0070C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width: 30%;"> <p>그로나산에 올라 바라본 풍경이 고국과 다르지 않아 우리 국토의 산천을 그리워함.</p> </div> <div style="font-size: 2em; color: #0070C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width: 30%;"> <p>노랫말을 떠올리며 자신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깨달음.</p> </div> </div>

교과서 읽기 중 활동

필자의 여정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며 읽어 보자.

예시 답 | 필자는 인상 좋게 생긴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도보 여행 시작점인 브레글리아에 도착한다. 산장을 거쳐 그로나산에 올라 호수를 감상한 후 하산한다.



읽기 중 활동 동영상

큐알 안내 | 필자의 여정에 따라 내용을 정리한 동영상

필자가 그로나산에서 내려오며 우리 국토를 떠올린 이유는 무엇일까?

예시 답 | 코모 호수의 아름다운 전경, 하산길에 발견한 엉겅퀴며 패랭이, 애기똥풀과 현호색, 용담 등의 풀숲의 꽃이 우리 국토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느낀 것이다.

어휘·어구 풀이

- 사우(四圍) 사방의 둘레.
- 물목 물이 흘러 들어오거나 나가는 어귀.
- ① 해발 고도 ~ 열려 있다. 산장은 호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 ② 물과 산과 ~ 다 푸르다. 산, 호수, 하늘이 모두 푸르러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 ③ 몸은 이국에 ~ 어찌해야 할까. 코모 호수, 그로나산의 풀숲의 꽃들이 우리 국토의 정경들과 비슷해 우리 고국산천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 코모에 뜬 보름달

김남희



이 글을 주체적으로 읽기 위해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해 보자.

- 제목의 '코모'는 어디일까?
- 기행문을 쓰거나 읽을 때에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 예시 답 | 코모 호수를 여행지로 한 다른 기행문도 있을까?, 필자는 왜 코모를 여행한 경험을 글로 남긴 것일까? 등

**처음** 가 다음 버스는 다섯 시간 후에나 있다. 잠시 망설이다 결국 걷기 시작했다. 가파른 오르막을 힘겹게 오르는데 차 한 대가 와서 선다. 이른 아침인 데다 인상 좋게 생긴 할아버지다. 나는 기꺼이 조수석에 오른다. 이곳이 고향이라는 할아버지는 '차집에 들러 차를 태워 주겠다는 한 할아버지의 제안을 기꺼이 수락함.' 할아버지가 배려해 준 인정도 한 잔 사 주시고, 도보 여행 시작점인 브레글리아에 나를 내려 준 후 길을 짚어 주신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기운이 좀 솟는다. 기행문의 특성 ①: 구체적인 여정 소개 그로나산으로 가는 길을 알려 주심. 여행의 시작점인 브레글리아에 도착

**처음** 친절한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도보 여행의 시작점인 브레글리아에 도착함.

**중간** 나 산으로 가는 길은 마을 뒤편에서 시작된다. '산장[Rifugio]'이라고 적힌 이정표를 따라가는 길이다. 바람이 호수 쪽에서 불어온다. 발밑에서는 마른 풀들이 바스락거리고, 내 발소리에 놀란 도마뱀들이 빠르게 달아난다. 일요일 오전, 하늘은 맑고 인적은 드물다. 호수를 오른쪽으로 끼고 올라가는 길, 높이 올라갈수록 호수는 점점 더 길어진다. 기행문의 특성 ②: 구체적인 시간 소개 코모 호수에 대한 견문 → 높이 올라갈수록 코모 호수의 모습이 더 많이, 길게 보임. 한 시간 반 만에 산장에 들어선다. ① 해발 고도 1,400미터에 자리 잡은 산장은 호수를 향해 열려 있다. 전망이 시원한 마당에서 아침을 먹으려 했더니 점심 식사부터 된단다. 시원한 홍차 한 잔을 마시고, 물통에 물을 채우고 다시 걷는다. 그로나산에 올라 호수를 끼고 산장에 이르는 여정 소개

**다** 걷기 시작한 지 세 시간 만에 오늘의 목적지인 그로나산에 올라섰다. 이곳은 온통 푸른빛이다. 북쪽과 서쪽 면은 물길이가 둘러싸고, 동쪽과 남쪽은 산들이 에워쌌다. ② 물과 산과 하늘이 경계도 없이 어우러져 사위가 다 푸르다. 끝도 없이 이어진 물길이가 코모가 얼마나 큰 호수인지를 짐작케 한다. 물길 사이로 섬처럼 뜬 산과 주홍색 기와를 엮은 집들을 바라본다. 그로나산 정상에서 바라본 호수와 산, 하늘이 모두 푸른 빛으로 어우러져 있음. 코모 호수의 방대한 크기 청평에서 춘천 가는 길의 어느 물목같다. 양평 근처 두물머리가 떠오르기도 한다. 산을 내려오는 길, 풀숲의 꽃들도 강원도의 산꽃들과 다르지 않아 엉겅퀴며 기행문의 특성 ③: 그로나산 정상에서 바라본 전체적인 풍경을 설명, 즉 견문을 소개함. 우리 국토의 산천을 그리워하게 되는 계기



패랭이, 애기똥풀과 현호색, 용담이 어우러져 있다. ③ 몸은 이국에 있어도 마음은 기행문의 특성 ④: 그로나산의 풀숲의 꽃들을 보며 느낀 감회를 소개함. 눈에, 마음에, 몸에 익은 곳을 그리고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까. 하산길은 계속 호수를 바라보며 걷는 길이다. 그로나산에서 바라본 풍경에 대한 견문과 감회 코모 호수

1 필자의 여정 1

학습 활동 1번

브레글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다가 차를 얻어 타고 브레글리아에 도착함.</li> <li>• 마을 뒤편에서 시작되는 산으로 가는 길은 오름.</li> </ul>
그로나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장'이라고 적힌 이정표를 따라 걸음.</li> <li>• 산장에 들러 휴식을 취하고 다시 걸음.</li> <li>• 정상에서 올라 호수 주변의 풍경을 감상함.</li> <li>• 호수를 바라보며 하산함.</li> </ul>

2 장소에 따른 필자의 견문 1

학습 활동 1번

장소	견문
그로나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레글리아 마을 뒤편에서 산으로 오르는 길이 시작되며 오른쪽으로 호수의 주변 경치를 바라볼 수 있음.</li> <li>• 한 시간 반 거리에 산장이 있고, 세 시간 만에 정상에 올를 수 있음.</li> <li>• 북쪽과 서쪽 면은 물길이 둘러싸고, 동쪽과 남쪽은 산들 사이에 에워싸여 있음.</li> <li>• 하산길은 계속 호수를 바라보며 걷는 길임.</li> </ul>
코모 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길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음.</li> <li>• 물길 사이로 섬처럼 뜬 산과 주홍색 기와를 얹은 집들이 보임.</li> </ul>

3 이 글에 드러난 여행지에서의 필자의 감상

학습 활동 1번

우리 국토에 대한 그리움	
그로나산에서 바라본 호수에 대한 느낌	청평에서 춘천 가는 길의 어느 물목같고, 양평 근처 두물머리가 떠오르기도 함.
그로나산 풀숲의 꽃	강원도의 산꽃들과 다르지 않아 엉겨켜 패랭이, 애기똥풀과 현호색, 용담이 어우러져 있다고 함.

↓

우리 국토, 고국산천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함.

4 사진 매체의 활용

학습 활동 1번

• 코모 호수를 촬영한 실제 사진을 제시한 효과

물과 산과 하늘이 경계도 없이 어우러져 사위가 다 푸르다. 끝도 없이 이어진 물길이 코모가 얼마나 큰 호수인지를 짐작케 한다. 물길 사이로 섬처럼 뜬 산과 주홍색 기와를 얹은 집들을 바라본다.

→ 사진을 제시함으로써 필자가 실제로 본 코모 호수의 푸른 빛의 물결, 방대한 크기, 주위의 산과 주홍색 기와의 집들을 독자들이 시각적으로 쉽고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둬.

01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소개되어 있다.
- ② 필자가 다녀온 곳에 대한 인상이나 감상 등이 서술되어 있다.
- ③ 어떤 현상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인 관점과 주장이 담겨 있다.
- ④ 문제가 되는 사회 현상에 대한 필자의 해결 방안이 서술되어 있다.
- ⑤ 특정한 형식을 바탕으로 한 필자의 허구적 상상력이 소개되어 있다.

02 이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브레글리아까지 차를 대위 주겠다는 할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 ② 할아버지는 차 한 잔도 사 주시고 브레글리아에 도착해 길도 짚어 주셨다.
- ③ 마을 뒤편으로 난 산길을 오른 지 한 시간 반 만에 '나'는 산장에 도착했다.
- ④ '나'는 산장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후 그로나산 정상까지 올라섰다.
- ⑤ '나'는 그로나산 정상에서 북쪽과 서쪽 면을 둘러싼 물길, 동쪽과 남쪽을 에워싼 산들을 살펴보았다.

03 이 글을 주체적으로 읽기 위한 질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브레글리아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걷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
- ② 우연히 만나 브레글리아로 데려다주신 할아버지의 고향은 어디일까?
- ③ 필자가 여행지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이 또 있을까?
- ④ 그로나산의 산길을 오를 때에 필자가 호수를 바라보는 심정은 어땠을까?
- ⑤ 물과 산, 하늘이 서로 경계도 없이 사위가 푸른 모습을 보는 필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서술형

04 이 글에 제시된 시각 매체의 종류와 해당 매체를 제시한 효과를 필자와 독자의 소통의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



---



---

독서와 작문의 의사소통 방법과 특성 이해하기

**1** 이 글을 읽고 독서와 작문의 의사소통 방법과 특성을 이해해 보자.

(1)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필자의 여정과 감상을 정리해 보자.



(2) 필자와 독자가 이 글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파악해 보자.

**| 예시 답 |**

<p><b>필자</b> 실제로 코모 호수에 와 보지 못한 독자들에게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어!</p>	<p><b>독자</b> “필자는 코모 호수를 여행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네.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자신만의 답도 찾은 것 같고 말이지. 나에게 마음의 평화를 안겨 준 여행지는 어디였을까?, 나도 여행지에서 내 삶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까?” 등</p>
--	--

필자가 이 글을 쓴 목적을 생각해 보면 사진을 수록한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16쪽의 사진을 보고, 글의 내용을 고려하여 사진의 제목을 생각해 보자.

(3) 필자가 이 글에 사진을 수록한 의도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고, 필자의 입장이 되어서 사진의 제목을 붙여 보자.

**| 예시 답 |** 필자는 “끝도 없이 이어진 물길에 코모가 얼마나 큰 호수인지를 짐작케 한다. 물길 사이로 섬처럼 뜬 산과 주홍색 기와를 얹은 집들을 바라본다.”라고 한 후, 그곳에서 유사한 풍경의 고국의 자연 경관을 떠올리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필자는 코모 호수의 아름다운 정경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사진을 첨부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진의 제목은 ‘코모 호수의 아름다운 정경, 주홍색 기와 너머 아름다운 코모 호수’ 등이 가능하다.

매체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의 양상 알아보기

필자가 어떤 기준으로 자료의 내용과 사진을 선정하고 배열했는지 생각하며 읽어 보자.

## 2 다음은 여행 블로그 자료이다. 이 글과 다음 자료를 비교하여 매체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양상을 알아보자.

블로그 | 추천 국내 여행 | 해외여행

## 노꼬메 오름

얼마 전 친구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사람들이 북적대는 유명한 장소도 좋지만, 이번 여행에서는 차분히 걸으면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장소로 가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선택한 바로 그곳, '노꼬메 오름'입니다.^^



노꼬메 오름은 애월읍에 위치해 있어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산138'  
이 주소를 찾아가면 됩니다.

주차장에서 노꼬메 오름의 정상까지 거리는 총 2.32km(킬로미터)입니다. 노꼬메 오름은 네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세 번째 구간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조금만 올라가면 옆에 표시한 저 쉼터에서 쉴 수 있어요. 쉼터를 넘어가면 황홀한 풍경이.....



보이시나요? 들리시나요? 오름 중간에 있는 억새밭이에요. 시원한 바람에 나무끼는 억새 소리! 또 가고 싶네요.^^



### 드디어 정상!



실제로 보면 더 멋지니까 꼭 가 보세요.  
노꼬메 오름에 관하여 더 알고 싶다면? 제주관광공사(<https://www.jto.or.kr>)  
# 제주특별자치도 # 여행 정보 # 노꼬메 오름

댓글 15

**즐거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에 가는데 노꼬메 오름은 꼭 들려야겠어요.

**파란 하늘**  
'나'의 댓글 \_\_\_\_\_

[ 01-0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다음 버스는 다섯 시간 후에나 있다. 잠시 망설이다 결국 걷기 시작했다. 가파른 오르막을 힘겹게 오르는데 차 한 대가 와서 선다. 이른 아침인 데다 인상 좋게 생긴 할아버지다. 나는 기꺼이 조수석에 오른다. 이곳이 고향이라는 할아버지는 찻집에 들러 차도 한 잔 사 주시고, 도보 여행 시작점인 브레글리아에 나를 내려 준 후 길을 짚어 주신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기운이 좀 솟는다.

나 산으로 가는 길은 마을 뒤편에서 시작된다. '산장[Rifugio]'이라고 적힌 이정표를 따라가는 길이다. 바람이 호수 쪽에서 불어온다. 발밑에서는 마른 풀들이 바스락거리고, 내 발소리에 놀란 도마뱀들이 빠르게 달아난다. 일요일 오전, 하늘은 맑고 ㉠인적은 드물다. 호수를 오른쪽으로 끼고 올라가는 길, 높이 올라갈수록 호수는 점점 더 길어진다. 한 시간 반 만에 산장에 들어선다. ㉡해발 고도 1,400미터에 자리 잡은 산장은 호수를 향해 열려 있다. 전망이 시원한 마당에서 아침을 먹으려 했더니 점심 식사부터 된단다. 시원한 홍차 한 잔을 마시고, 물통에 물을 채우고 다시 걷는다.

다 걷기 시작한 지 세 시간 만에 오늘의 목적지인 그로나산에 올라섰다. 이곳은 온통 푸른빛이다. 북쪽과 서쪽 면은 물길이 둘러싸고, 동쪽과 남쪽은 산들이 에워쌌다. 물과 산과 하늘이 경계도 없이 어우러져 ㉢사위가 다 푸르다. 끝도 없이 이어진 물길이 코모가 얼마나 큰 호수인지를 짐작케 한다. 물길 사이로 섬처럼 뜬 산과 주황색 기와를 얹은 집들을 바라본다. 청평에서 춘천 가는 길의 어느 ㉣물목같다. 양평 근처 두물머리가 떠오르기도 한다. 산을 내려오는 길, 풀숲의 꽃들도 강원도의 산꽃들과 다르지 않아 엉성키며 패랭이, 애기똥풀과 현호색, 용담이 어우러져 있다. 몸은 ㉤이국에 있어도 마음은 눈에, 마음에, 몸에 익은 곳을 그리고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까. 하산길은 계속 호수를 바라보며 걷는 길이다.

01 이 글을 읽을 때의 독서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필자가 주장한 내용과 그 근거를 파악한다.
- ② 문제로 제시되는 현상과 그 해결 방안을 파악한다.
- ③ 필자가 비판하고 있는 대상과 그 대안을 파악한다.
- ④ 이동 경로에 따라 필자가 보고 느낀 점을 파악한다.
- ⑤ 시간적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 과정과 그 원인을 파악한다.

02 이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브레글리아로 가는 버스가 다섯 시간 후에 온다는 사실에 필자는 걷기로 결심했군.
- ② 브레글리아까지 데려다주며 길까지 알려 준 할아버지의 호의에 필자는 기운이 솟았군.
- ③ 일요일을 맞아 그로나산으로 오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기척에 놀란 도마뱀들이 빠르게 달아났군.
- ④ 한 시간 반 만에 오른 그로나산의 산장은 호수를 향해 열려 있어 전망이 시원하고 좋았군.
- ⑤ 산장에서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고 홍차 한 잔을 마시고 다시 걸음을 옮겼군.

03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람의 발자취. 또는 사람의 왕래
- ② ㉡: 해수면으로부터 계산하여 잰 육지나 산의 높이
- ③ ㉢: 네 사람이 겨나을 정도의 굵기
- ④ ㉣: 물이 흘러 들어오거나 나가는 어귀
- ⑤ ㉤: 인정, 풍속 따위가 전혀 다른 남의 나라

04 (다)를 <보기>와 같이 나눌 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묘사한 부분	감상을 나타낸 부분
㉦	㉧

- ① ㉦: 그로나산의 희귀한 자연 풍경  
㉧: 그로나산에 처음 오른 감격
- ② ㉦: 코모 호수의 크고 아름다운 정경  
㉧: 그로나산에서 느낀 고국에 대한 그리움
- ③ ㉦: 코모 호수의 친근한 풍경  
㉧: 그로나산을 쉽게 올라온 것에 대한 안도감
- ④ ㉦: 코모 호수의 시작과 끝의 정경  
㉧: 그로나산에서 옛 친구들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
- ⑤ ㉦: 그로나산을 둘러싼 코모 호수의 모습  
㉧: 아름다운 코모 호수를 두고 떠나는 아쉬움

[ 05-08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주린 배를 움켜쥐고 브레글리아에 내려섰다. 걷거나 차를 얻어 타며 메나지오로 돌아오자마자 식당부터 찾아간다. 제일 비싼 참치 스테이크를 시켜 동물성 단백질을 주입하고 나니 호수의 물빛도 더 싱그럽고, 툭툭 부러지듯 말하는 이탈리아어도 더 정겹게 들려온다.

나 저녁을 먹고 호수를 따라 걸었다. <중략>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면서 물가를 걷는데 어디선가 노래가 들려온다. 소리를 따라 가니 호텔의 정원이다. 차 한 잔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는다. 가수가 색소폰 연주에 맞추어 재즈풍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서늘한 저녁 바람 속에 부드럽게 번져 가는 색소폰 소리. 어느 순간 색소폰 연주자가 「마이 웨이」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 노래를 즐겨 듣던 날들이 떠오른다. 노래가 물결처럼 밀려온다.

다 그래, 중요한 건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야. 남들과 나를 비교할 필요는 없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니까. 나는 이대로 계속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길 끝에서 내가 찾던 모든 것을 얻게 되겠지. 노래는 지친 나를 파스하게 어루만져 준다. 어느새 산 너머가 환해지고 있다. 보름달이 뜨려나 보다. 내 마음도 덩달아 환해진다.

수능형

05 이 글을 읽고 <보기>의 ㉠~㉣과 연관 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독자는 ㉠ 독서 목적을 고려하고 ㉡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면서 글을 읽는다. 독자는 필자와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 있지만 ㉢ 글의 내용을 단서로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필자와 소통한다. 또한 ㉣ 독서 목적에 따라 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글의 의미를 파악한다.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 글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도 한다.

- ① 독자가 기행문 쓰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읽었다면 ㉠을 고려한 것이군.
- ② 코모 호수를 다녀온 독자가 호수의 정경을 회상하며 읽었다면 ㉡을 고려한 것이군.
- ③ ‘내 마음도 덩달아 환해진다.’는 것은 필자의 마음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을 고려한 것이군.
- ④ 코모 호수를 알리기 위한 글을 쓸 때 이 글의 내용에 덧붙여 정보를 좀 더 추가했다면 ㉣을 고려한 것이군.
- ⑤ 코모 호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글에 나온 대로 여행을 계획하며 글을 읽었다면 ㉤을 고려한 것이군.

학습 활동 응용

06 이 글을 읽은 독자가 필자와 소통하기 위해 떠올린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브레글리아에서 메나지오까지 가서 식당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일까?
- ②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호수의 물빛이 더 싱그럽게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 ③ 이탈리아어는 왜 툭툭 부러지듯 말하는 투가 되었을까?
- ④ 저녁을 먹고 보름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며 호수를 걷는 심정은 어땠을까?
- ⑤ 「마이 웨이」라는 노래를 즐겨 듣던 날들이 어떠했는지 궁금하군.

07 이 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적 순서에 따른 필자의 여정이 제시되어 있다.
- ② 감탄사를 사용해 마음속의 결심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유추로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 ④ 명사형으로 문장을 종결해 필자가 놓인 상황을 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⑤ 필자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노래를 언급하여 필자의 마음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서술형

08 <보기>는 기행문 ‘산정무한’의 일부이다. ‘인생’에 대한 필자의 태도를 이 글의 (다)와 비교하여 쓰시오.

<보기>

천 년 사직이 남가일몽이었고 태자 가신 지 또다시 천 년이 지났으니 유구한 영겁으로 보면 천 년도 수유(須臾)던가! 고작 칠십 생애에 희비애락을 싣고 각축(角逐)하다가, 한 움큼 부토(腐土)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니, 의지 없는 나그네의 마음은 암연(暗然)히 수수(愁愁)롭다.

- 정비석, 「산정무한(山情無限)」 중

<조건>

‘(다)는 ~에 비해, <보기>는 ~ 있다.’의 형식으로 서술할 것

[ 01-0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다음 버스는 다섯 시간 후에나 있다. 잠시 망설이다 결국 걷기 시작했다. 가파른 오르막을 힘겹게 오르는데 차 한 대가 와서 선다. 이른 아침인 데다 인상 좋게 생긴 할아버지가. 나는 기꺼이 조수석에 오른다. 이곳이 고향이라는 **㉠ 할아버지**는 찻집에 들러 차도 한 잔 사 주시고, **㉡ 도보 여행 시작점인 브레글리아에** 나를 내려 준 후 길을 짚어 주신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기운이 좀 솟는다.

산으로 가는 길은 마을 뒤편에서 시작된다. ‘산장[Rifugio]’이라고 적힌 이정표를 따라가는 길이다. 바람이 호수 쪽에서 불어온다. 발밑에서는 마른 풀들이 바스락거리고, 내 발소리에 놀란 도마뱀들이 빠르게 달아난다. 일요일 오전, 하늘은 맑고 인적은 드물다. 호수를 오른쪽으로 끼고 올라가는 길, 높이 올라갈수록 호수는 점점 더 깊어진다. 한 시간 반 만에 산장에 들어선다. **㉢ 해발 고도 1,400미터에 자리 잡은 산장**은 호수를 향해 열려 있다. 전망이 시원한 마당에서 아침을 먹으려 했더니 점심 식사부터 된다. 시원한 홍차 한 잔을 마시고, 물통에 물을 채우고 다시 걷는다.

걷기 시작한 지 세 시간 만에 오늘의 목적지인 그로나산에 올라섰다. 이곳은 온통 푸른빛이다. 북쪽과 서쪽 면은 물길에 둘러싸고, 동쪽과 남쪽은 산들이 에워쌌다. 물과 산과 하늘이 경계도 없이 어우러져 사위가 다 푸르다. 끝도 없이 이어진 물길에 코모가 얼마나 큰 호수인지를 짐작케 한다. 물길 사이로 섬처럼 뜬 산과 주홍색 기와를 얹은 집들을 바라본다. 청평에서 춘천 가는 길의 어느 물목같다. 양평 근처 두물머리가 떠오르기도 한다. 산을 내려오는 길, 풀숲의 꽃들도 강원도의 산꽃들과 다르지 않아 엉성키며 패랭이, 애기똥풀과 현호색, 용담이 어우러져 있다. **㉣ 몸은 이국에 있어도 마음은 눈에, 마음에, 몸에 익은 곳을 그리고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까. 하산 길은 계속 호수를 바라보며 걷는 길이다.

나 강물은 두 산 사이에서 쏟아져 나와, 바윗돌과 부딪치며 거세게 다룬다. 그 화들짝 놀란 듯한 파도, 분노를 일으킨 듯한 물결, 슬피 원망하는 듯한 여울물은 내달아 부딪치고 휘말려 곤두박질치며 울부짖고 고향치는 듯하여, 항상 만리장성을 쳐부술 듯한 기세를 지니고 있다. **㉤ 전거(戰車) 만 채, 전기(戰騎) 만 대(隊), 전포(戰砲) 만 문(門), 전고(戰鼓) 만 개**로도 무너져 내려앉고 터져 나오며 짓누르는 저 강물의 소리를 비유

하기에 부족하다.

백사장에는 거대한 바윗돌이 우뚝하게 늘어서 있고, 강둑에는 버드나무들이 어두컴컴하여 형체를 분간하기 힘들다. 흡사 물귀신들이 다투어 나와 잘난 체 뽐내는 듯하고, 좌우에서 이 무기들이 사람을 낚아채려고 애쓰는 듯하다.

㉠ 어떤 이가 “이곳은 옛 전쟁터이기 때문에 강물 소리가 그런 것이다.”라고 한다. 하지만 그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강물 소리란 어떻게 들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나는 ㉢ 산중에 살고 있는데, 대문 앞에 큰 계곡이 있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어 소나기가 한차례 지나갔다 하면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 노상 전거와 전기와 전포와 전고 소리를 듣게 되니, 마침내 꺾병이 날 지경이 되었다.

나는 예전에 방문을 닫고 누워서 그 소리를 다른 비슷한 소리들에 견주어 보며 들은 적이 있었다. 솔숲에 바람이 불 때 나는 듯한 소리, 이는 계곡물 소리를 청아하게 들은 경우다. 산이 갈라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 이는 흥분해서 들은 경우다. 개구리 떼가 다투어 우는 듯한 소리, 이는 우쭐해서 들은 경우다. 만 개의 축(筑)이 연거푸 울리는 듯한 소리, 이는 분노하면서 들은 경우다.

## 0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필자가 경험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 ② 사색을 바탕으로 교훈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③ 필자가 문제시하는 사회 현상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 ④ 필자가 살아온 내력을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다.
- ⑤ 예상 독자의 태도 변화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02 (가), (나)를 읽은 독자가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는 필자의 과거 경험이 드러나 있군.
- ② (나)보다는 (가)에 여정이 잘 드러나 있군.
- ③ (나)보다는 (가)에 과장적 진술이 두드러지군.
- ④ (가)보다는 (나)에 다양한 표현법이 사용되고 있군.
- ⑤ (가)와 (나)는 모두 구체적 높이나 수량 등을 활용해 내용을 서술하고 있군.

03 ㉠, ㉡에 대한 필자의 인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그리움을 느끼고 있는 인물이라면, ㉡은 꺼려야 할 인물로 제시되고 있다.
- ② ㉠이 깨우쳐 주어야 할 인물이라면, ㉡은 깨달음을 제공해 준 인물로 제시되고 있다.
- ③ ㉠이 호기심을 느끼고 있는 인물이라면, ㉡은 도움을 주어야 할 인물로 제시되고 있다.
- ④ ㉠이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 준 인물이라면, ㉡은 질책을 해야 할 인물로 제시되고 있다.
- ⑤ ㉠이 호의를 느끼고 있는 인물이라면, ㉡은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인물로 제시되고 있다.

수능형

04 <보기>를 참고로 하여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독서와 작문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독자와 필자, 독자와 필자를 연결하는 글과 자료,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맥락이 있어야 한다. 독서와 작문의 의사소통은 독자와 필자가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며,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글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거나 혹은 사회의 문제를 글을 통해 해결하는 사회적 실천 행위를 말한다.

- ① ㉠을 언급한 것은 필자가 여행 중이라는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군.
- ② ㉡에 대한 사진이 있다면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기에 좋을 것 같아.
- ③ ㉢를 통해 필자가 우리 국토에 대해 애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④ ㉠가 전쟁에 쓰이는 도구들이라는 데서 당시 사회적 현실이 글쓰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⑤ ㉣에서 들었던 계곡물 소리는 필자가 현재 접하고 있는 강물 소리에 대해 사색하게 하는 경험으로 작용하고 있어.

[ 05-07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주린 배를 움켜쥐고 브레글리아에 내려섰다. 건너 차를 얻어 타며 메나지로 돌아오자마자 식당부터 찾아간다. 제일 비싼 참치 스테이크를 시켜 동물성 단백질을 주입하고 나니

호수의 물빛도 더 싱그럽고, 툭툭 부러지듯 말하는 이탈리아어도 더 정겹게 들려온다.

나 저녁을 먹고 호수를 따라 걸었다. <중략>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면서 물가를 걷는데 어디선가 노래가 들려온다. 소리를 따라 가니 호텔의 정원이다. 차 한 잔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는다. 가수가 색소폰 연주에 맞추어 재즈풍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서늘한 저녁 바람 속에 부드럽게 번져 가는 색소폰 소리. 어느 순간 색소폰 연주가 「마이 웨이」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 노래를 즐겨 듣던 날들이 떠오른다. 노래가 물결처럼 밀려온다.

난 충분한 인생을 살아왔고 [I've lived a life that's full.]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I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난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I did it my way.]

다 그래, 중요한 건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야. 남들과 나를 비교할 필요는 없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니까. 나는 이대로 계속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길 끝에서 내가 찾던 모든 것을 얻게 되겠지. 노래는 지친 나를 따스하게 어루만져 준다. 어느새 산 너머가 환해지고 있다. 보름달이 뜨려나보다. 내 마음도 덩달아 환해진다.

라 방금 내 마부가 말에게 발을 밟혔으므로, 뒤따라오는 수레에 그를 태웠다. 그리고 나서 말의 굴레를 풀어 주고 말을 강물에 등등 뜨게 한 채로 두 무릎을 바짝 오그리고 발을 모아 말안장 위에 앉았다. 한번 추락했다 하면 바로 강이다. 나는 강을 대지처럼 여기고, 강을 내 옷처럼 여기고, 강을 내 몸처럼 여기고, 강을 내 성정(性情)처럼 여기었다. 그리하여 마음속으로 한번 추락할 것을 각오하자, 나의 귓속에서 마침내 강물 소리가 없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무려 아홉 번이나 강을 건너는 데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 마치 안석 위에 앉거나 누워서 지내는 듯하였다.

마 소리와 빛깔은 나의 외부에 있는 사물이다. 이러한 외부의 사물이 항상 귀와 눈에 누를 끼쳐서, 사람이 올바르게 보고 듣는 것을 이와 같이 그르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강을 건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뿐 아니라, 보고 듣는 것이 수시로 병폐가 됨에랴! 나는 장차 나의 산중으로 돌아가 대문 앞 계곡의 물소리를 다시 들으며 이와 같은 깨달음을 검증하고, 아울러 처신에 능란하여 제 귀와 눈의 총명함만 믿는 사람들에게도 경고하련다.



문제의 의도, 정답 해설과 오답 풀이를 제공하는

# 정답과 해설

# 정답과 해설



## 독서와 작문의 본질

### (1) 독서와 작문의 이해

확인 문제 01

13쪽

01. ② 02. ④ 03. ② 04. 사진 매체를 제시했으며, 코모 호수의 방대한 크기와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독자들이 내용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01 이 글은 필자가 이탈리아의 코모 호수를 다녀온 여정과 견문, 감상 등을 서술한 기행문이다. 기행문은 필자가 다녀온 곳에 대한 인상이나 감상 등이 소개되어 있다. 이 글에서도 코모 호수의 정경에 대한 인상과 그에 대한 감상이 주로 나타나 있다.

02 '나'는 마을 뒤편으로 난 산길을 따라 그로나산을 올라 한 시간 반 만에 산장에 도착했다. 산장에서 식사를 하려고 했으나 점심 식사만 된다고 해서 홍차 한 잔을 마시고 물통에 물을 채운 후 다시 정상을 향했다. 그러므로 산장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후 그로나산 정상까지 올라섰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나'가 할아버지의 차 조수석에 기꺼이 올랐다는 것은 브레글리아까지 차를 태워 주겠다는 할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나'를 브레글리아까지 데려다주신 할아버지는 중간에 차도 사 주시고 브레글리아에 도착해 길도 짚어 주셨다.

③ '나'는 마을 뒤편으로 난 그로나산으로 가는 산길을 오른지 한 시간 반 만에 산장에 도착했다.

⑤ 그로나산 정상에서 호수를 바라보며 '북쪽과 서쪽 면은 물길이 둘러싸고, 동쪽과 남쪽은 산들이 에워쌌다.'라고 한 점에서 '나'는 그로나산 정상에서 북쪽과 서쪽 면으로 펼쳐진 물길, 동쪽과 남쪽에 펼쳐진 산들을 살펴보았다고 할 수 있다.

03 (가)에서 브레글리아로 데려다주신 할아버지가 자신의 고향이 이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에서 ②의 질문은 해답이 이미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할아버지의 고향은 이 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체적인 질문이라고도 하기 어렵다.

### 이것만은 알고 가기 주제적 읽기

주제적 읽기는 어떤 글을 읽을 때 독서 목적, 필자와의 소통, 매체 유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읽는 것을 말한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내용 확인을 넘어서 주제적인 태도로 글의 내용에 공감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여 '나'와 타인, '나'와 세계의 관계를 형성하는 읽기이다.

04 이 글에서는 본문에 코모 호수의 정경을 담은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코모 호수와 그 주위 정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진 자료를 첨부함으로써 코모 호수와 그 주위 정경을 보다 실감 나고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게 한다.

### | 서술형 평가 기준 |

시각 매체의 종류와 해당 매체를 제시한 효과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시각 매체의 종류와 해당 매체를 제시한 효과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중
시각 매체의 종류와 해당 매체를 제시한 효과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하

확인 문제 02

15쪽

01. ① 02. ② 03. ③ 04. 필자는 노랫말의 '난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는' 부분을 통해 인생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있다.

01 이 글은 기행문으로 필자가 그로나산을 내려와 브레글리아를 거쳐 메나지오의 호텔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전달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잘못된 통념이 제시되거나 반박하는 내용은 살피볼 수 없다.

③ 대립되는 두 입장을 소개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④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⑤ 특정 사회 현상에 대한 필자의 비판적 관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 이것만은 알고 가기 통념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 등을 일컫는 말이다. 보통 상식적인 수준에서 왠지 그럴싸한 생각이나 사고 방향들을 뜻한다. 통념은 성격에 따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고일 수도 있는데, 사실과 맞지 않을 때는 '잘못된'이라는 말을 붙여야 올바른 표현이 된다.

02 필자는 주린 배를 움켜쥐고 브레글리아에 도착하였고, 걷거나 차를 얻어 타며 메나지오로 돌아오자마자 식당부터 찾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브레글리아에서 주린 배를 채웠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그로나산에서 내려오는 하산길은 계속 호수를 바라보며 걷는 길이라고 하였다.

③ 주린 배를 채우니 호수의 물빛도 싱그럽게 보이고 툭툭 부러지듯 말하는 이탈리아어도 정겹게 느껴졌다고 하였다.

④ 호수의 물가를 걷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랫소리를 따라가니 호텔의 정원이었다고 하였다.

⑤ 필자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면 '길 끝에서 내가 찾던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03** 필자는 어느 순간 예기치 않게 색소폰 연주자의 「마이 웨이」 연주를 듣게 되는 것이므로, ㉠이 「마이 웨이」 연주를 듣기 위한 준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04** 필자가 인용한 「마이 웨이」의 노랫말 중에서 '난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는 겁니다.'는 뒤에 이어지는 필자의 인생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필자는 중요한 건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지금 자신이 가는 길이 맞는 길이므로 이대로 계속 가겠다고 다짐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 웨이」의 노랫말은 필자로 하여금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노랫말의 내용을 언급하고 그 역할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노랫말의 내용을 언급했으나 그 역할에 대한 언급이 다소 미흡한 경우	중
노랫말의 내용이나 그 역할에 대한 언급이 모두 적절하지 않게 서술된 경우	하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23쪽

01. ④ 02. ③ 03. ③ 04. ② 05. ⑤ 06. ③ 07. ③

08. (다)는 자신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필자의 확신을 나타내는데 비해, <보기>는 인생이 무상하다는 필자의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다.

**01** 이 글은 브레글리아로 이동해 그로나산을 오르는 필자의 이동 상황 및 그 견문과 감상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이동 경로에 따라 필자가 보고 느낀 점을 파악하며 읽는 태도가 필요하다.

**| 오답 풀이 |** ① 필자가 주장한 내용이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② 문제로 제시되는 현상과 그 해결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필자가 비판하고 있는 대상이나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⑤ 호수를 끼고 올라갈수록 호수가 점점 더 길어진다고 하여 시간적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 과정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02** (나)에서 그로나산을 오르며 '일요일 오전, 하늘은 맑고 인적은 드물다.'라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많아서 도마뱀들이 인기척에 놀랐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브레글리아로 가는 버스가 다섯 시간 후에 온다는 사실에 필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걷기로 결심했다.

② 브레글리아까지 데려다주며 길까지 알려 준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필자는 기운이 좀 솟는다고 하였다.

④ 그로나산의 해발 고도 1,400미터에 자리 잡은 산장은 호수를 향해 열려 있고 전망이 시원하다고 하였다.

⑤ 필자는 산장에서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고 훙차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정상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03** ㉠의 올바른 사전적 의미는 '사망의 돌레'이다.

**04** (다)에서 묘사 부분은 '물과 산과 하늘이 경계도 없이 어우러져 사위가 다 푸르다. 끝도 없이 이어진 물길에 코모가 얼마나 큰 호수인지를 짐작케 한다.'를 통해 코모 호수의 아름다운 정경과 방대함을 표현한 부분이다. 감상을 나타낸 부분에서는 '청평에서 춘천 가는 ~ 이를 어찌해야 할까.'를 통해 코모 호수의 정경과 풀숲의 꽃들을 보며 이국에 있어도 고국산천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

**이것만은 알고 가기 > 기행문의 감상**

기행문은 여정 중에 보고 들은 견문과 함께 필자의 느낌이나 생각, 감정 등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감상에 대한 서술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느낀다', '생각한다' 등의 서술로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05** 코모 호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글에 나온 대로 여행을 계획하며 글을 읽었다면 독서의 목적과 관련된 것이므로 ㉠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기행문 쓰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목적이 드러나 있으므로 ㉠을 고려한 것이다.

② 코모 호수를 다녀온 독자가 호수의 정경을 회상한 것은 독자의 경험과 관련된 것이므로 ㉠을 고려한 것이다.

③ 환해지는 산 너머처럼 필자의 마음도 환해진다는 것을 필자의 마음 상태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필자의 의도를 추측한 것이므로 ㉠을 고려한 것이다.

④ 코모 호수를 알리기 위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추가했다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것이므로 ㉠을 고려한 것이다.